SLOW
슬로우성형외과의원
주소 : 제주시 노형8길3 우학빌딩 5~7층 문의 : 064-900-2600 심의필 : 제 180227-중-93863호

SINCE 1989 창간 31주년
한라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拏日報 제9239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음력 9월 27일)

제주교육 안정화기금 출발부터 '삐걱'

도교육청 이달 중 기금 설치·운용 조례 공표 예정
재정압박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적립금 '0원' 예상
부산·강원·경북교육청 등 수천억 원 기금과 대조

제주도교육청이 야심차게 추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재정 압박으로 수 년간 십원짜리 한장 적립하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공표된다.

이 조례는 도교육청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만들어졌다. 쉽게 말하면 여윳돈이 남는 해에 기금을 적립하고, 반대로 돈이 부족한 해에는 적립한 기금을 인출해 메꾸는 것이다. 적립 기준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도교육감이 결정한 금액'으로 비교적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했다.

문제는 오는 2022년까지는 기금 잔고가 '0원'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세수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기금을 적립할 여윳돈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0일 발표된 '2021년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도 올해보다 362억원 줄어든 1조1699억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 301억원, 지자체 이전수입 67억원이 올해와 비교해 감소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내년에 시설개선기금 641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기금 역시 2021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2022년까지는 적립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기금을 설치했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한다"며 "앞으로의 목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각각 50억원, 100억원, 100억원 등 총 250억원을 적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월 1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재정안정화기금 현황을 보면 부산교육청이 39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교육청 2537억원, 경북교육청 2270억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제주를 비롯해 서울, 대구, 울산, 경기, 충남, 전남 등 7곳은 0원이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아래서… 11일 제주대학교 교수아파트 입구 은행나무길을 찾은 어린이들이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 고용률 4개월 연속 회복세 취업자수는 전년보다 8000명 ↓

10월 제주도 고용동향 결과
비경제활동인구 1만명 증가

올해 초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하향세로 접어들었던 제주지역 고용률이 지난 6월 이후 4개월 연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 중단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난달 취업자수는 지난해 동월보다 8000명이나 감소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가 11일 발표한 '10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주지역 고용률은 지난 1월 69.2 %에서 2월 67.6%, 3월 65.8%, 4월 65.8%로 하락한 후 5월 66.4%로 상승했다가 6월 65.6%로 다시 하락한 후 7월 66.8%, 8월 67.2%, 9월 67.5%, 10월 67.5%로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고용률(67.5%)은 전년동월대비 1.8%p하락한 것이다.

이에 반해 취업자는 38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000명 감소(-2.1%)했다.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농림어업 8000명(11.0%), 광공업은 1000명(11.2%) 증가했으나 전기·운수·통신·금융업 8000명(-20.4%), 도소매·숙박·음식점업 5000명(-5.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3000명(-2.5%)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20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00명(-2.4%) 감소했고 여자는 17만7000명으로 3000명(-1.9%) 감소했다.

고용률은 67.5%로 전년동월대비 1.8%p 하락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2.5%로 전년동월대비 2.3%p 하락했고, 여자는 62.5%로 1.5%p 떨어졌다.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70.9%로 전년동월대비 2.1%p 떨어졌다.

지난달 실업률은 2.1%로 전년동월대비 0.5%p상승했다. 실업자는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명이나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00명(26.8%) 증가, 여자는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00명(30.4%) 늘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비임금근로자는 4000명(2.8%) 증가한 13만9000명으로, 이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5000명(19.9%) 증가했으나 자영업자는 1000명(-0.9%) 감소했다. 임금근로자는 1만2000명(-4.7%) 감소한 24만 1000명으로, 이 중 상용근로자는 5000명(2.9%)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1만3000명(-20.9%), 일용근로자는 3000명(-9.5%) 각각 감소했다.

지난 8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8.9%로 전년동월대비 1.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는 38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명(-1.6%) 감소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8.9%로 전년동월대비 1.6%p 하락했다. 이에 반해 비경제활동인구는 17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명(5.9%) 증가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내일부터 마스크 안하면 과태료 10만원

도내 55개업종 착용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도내 55개 업종 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7차례의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통해 시설별 감염병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종을 55개로 늘려왔으며, 중점·일반관리시설 20개소를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시설로 지정했다.

12일 행정명령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3일부터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55개 업종 내에서는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착용으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만 14세 미만자 등 법령상 면제자, 마스크 착용 시 호흡곤란 등 의학적 소견을 가진 병리적 질환자, 음식물 섭취를 포함한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 도 방역당국이 지정한 경우에 대하여 예외사항으로 인정한다.

또한 중점관리시설 10개소와 일반관리시설 14개소는 전자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자가 핵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출입자명부 작성이 새롭게 의무화된 도내 150㎡이상 식당·카페 2826개소(제주시 1821개소, 서귀포시 1005개소)와 일반관리시설 14개소는 정부 지침에 따라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2월 7일 0시부로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자 명부의 경우 13일 공식 런칭 예정인 '제주안심코드'로 점차적으로 일원화해 확진자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에 따른 접촉자 격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im

16일부터 감축운행 버스노선 정상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여파로 감축 운행 중인 버스노선을 오는 16일부터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8~9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의 영향으로 이용객이 감소함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29개 노선(42대)에 대해 감축 운행에 들어갔다.

또한, 지난 1일부터 감축 운행 노선을 기존 29개(42대)에서 26개(34대)로 조정했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돼 일부 학교가 전체 등교를 하고 있고, 현재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없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내달 3일 치러지는 상황 등을 감안해 16일부터 감축 운행을 해제해 정상 운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태윤기자

아너 소사이어티
HONOR SOCIETY

사랑의열매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를 변화시키는 사람들
아너 소사이어티

아너 주간 : 매년 11월 12일~18일
매월 12일은 나눔의 날

11월 11일 기준, 111명 가입
(익명 회원 6명 포함)

다음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아너 주간 선포식 및 2020년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총회

2020.11.12.(목) 18:30 아젠토피오레컨벤션

*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만든 1억원 이상의 고액기부자 모임으로, 현재 전국 2,301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